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0. 2. 5(수) 총 8매(본문5)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책과	·과장 박재순, 사무관 이진우, 주무관 이주원 ·☎ (044) 201-3517, 3522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실	·실장 김태엽, 차장 김효은 ·☎ (02) 3406-1044, 1058
보 도 일 시		2020년 2월6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월6일(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2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제안형 펀드 2천억 원 조기 출시

- PIS펀드 1.5조 원 조성 목표로 5월 출시 완료 예정,
 '20년 2월 5일 현재까지 100억 불로 금년 해외건설 수주 호전 예상 -

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출시

□ (PIS 펀드 출시) 국토교통부는 2월 중순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기 출시(제안형 펀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 美 석유화학플랜트(100억 불) 등

○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5조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19.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였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하여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2천억 원) 이외에 플랜트(Plant, 3천억 원), 인프라(Infrastructure, 6천억 원), 스마트시티(Smart City, 4천억 원) 펀드로 구성된다. 플랜트·인프라 등 주력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하여 자펀드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5조 원 중 5천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하여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KIND*와 우리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여 7~8건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②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1천억 원 이상 투자

□ (글로벌인프라펀드) 국토교통부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7호도 총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금년 조성 금액 중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남방·북방 지역 등 시장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모펀드·자펀드로 구성되는 PIS 펀드와 달리 각각 하나의 투자 펀드로 구성되며 펀드별로 벤처투자, 지역특화 등 목적이 다양하다.

- 글로벌인프라펀드 4호(벤처펀드, 850억 원)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대상 및 투자금액 한도 등 투자조건을 완화하여 펀드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신남방, 1,100억 원)와 6호(신북방, 1,100억 원)는 '19.5월 정부, 민간투자자 등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투자 대상 사업의 리스크, 수주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금년 각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신남방·북방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1,000억 원)는 '19.1월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승인(320억 원)하였으며, 금년 추가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다.

③ 200억 불 규모 G2G 및 투자개발사업 추진

□ (투자개발사업) 금년 KIND의 주도로 200억 불 규모의 정부 간 협력(G2G) 사업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간 협력(G2G)은 해외 발주기관 등과 사업을 직접 협의·제안하여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국토교통부와 KIND는 '20.1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도로·철도·송전선로 등 3건의 사업(93억 불)에서 우리기업이 '우선사업권*'을 확보하였다(1.23일 보도자료 참고).

*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측은 별도의 공개입찰(Open Bidding) 절차 없이 우리측과 단독으로 사업조건 협의하고 향후 사업계약을 맺을 예정

○ 또한, 파라과이, 스리랑카, 미국, 러시아 등에서도 정부 간 협력사업 및 투자개발사업(107억 불)을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사업권 확보와 해외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KIND의 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해외 인프라협력센터 1개소를 연내에 추가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정보 획득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 '19년 베트남, 인니, 우즈베키스탄, 케냐 4개소 구축 완료

④ '20년 2월 5일 현재까지 해외건설 100억 불 수주

□ (수주 실적) 금년 2.5일 현재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0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8.5배, 과거 5년 평균 대비 2.7배 상승하였다. 우리기업들이 중동 지역의 플랜트, 아시아 지역의 대형 공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선전하면서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 사우디 하위야 우나이자 정유공장(19억불), 파나마 메트로(25억 불)을 반영한 실적

【 1월 주요 계약 사업 】

지 역	사 업 명	금액(억불)	비고
중동	알제리 오마쉬 복합화력발전소	7.3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정유 프로젝트	16.6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10.6	
아시아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공항	16.6	

* 사우디 하위야 우나이자 정유공장(19억 불) 수주통보 예정, 파나마 메트로(25억 불)도 수주

□ (전망) 금년 1/4분기에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계속 호전되어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로 전망된다. 작년 중동(이라크)의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발주와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고, 약 130억 불 규모의 계약이 '20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월의 수주 실적, 이월 물량 등을 감안 시 수주 실적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년 해외건설 수주는 300억 불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시설(24.5억 불) 등

** 우리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향후 공사계약이 예정된 사업

⑤ 2019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 (총괄) '19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321억 불) 31% 감소한 223억 불이다. 수주건수는 669건으로 전년대비(662건) 7건 증가하였고, 진출기업(386개), 진출국가(100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 '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중동 발주 감소* 등으로 대외 수주 환경이 악화되었다. 우리기업들도 수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19년 상반기 중동 발주 물량은 전년 대비 75% 수준(MEED Project, 해외전문지)

** '19년 우리기업의 수주활동 공사 전체 규모는 686억 불로 전년 대비 16%↓

【수주현황 (2010-2019)】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수주금액(억 불)	716	591	649	652	660	461	282	290	321	223
수주건수(건)	593	625	620	682	708	697	607	624	662	669
진출기업 수	418	391	408	449	461	447	411	421	400	386
진출국가 수	91	94	95	104	99	108	101	105	106	100

□ (주요 특징) 전년대비 엔지니어링(용역)의 수주액(8.2억 불→12.7억 불)과 수주건수(264건→275건) 모두 증가하였다. 엔지니어링은 기획과 설계 등을 수행하는 지식 집약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기자재 투입 등 후방 공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악화된 대외여건에서도 고부가가치 영역의 수주는 증가하여 의미가 크다.

* 엔지니어링 수주액: '17년) 8.4억 불, '18년) 8.2억 불

○ (투자개발사업) 약 18억 불을 수주하여 전년대비(11.9억 불) 실적이 증가하였다.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 런던 실버타운 터널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투자 등을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폴란드 화학플랜트 사업은 KIND의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동유럽 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게 된 의미있는 성과이다.

* (폴란드 화학플랜트, 11.2억 불) 현대엔지니어링 시공·투자, KIND의 투자지원

* (런던 실버타운 터널, 2.4억 불) SK건설 시공·투자, 수출입은행 투자지원

○ (정부 간 계약사업) 한국공항공사 등이 페루 친체로 신공항 총괄 관리 사업을 수주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항건설 PMO 시장에 진출하였고 해외 인프라 분야 최초의 정부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스페인, 캐나다 등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수주에 성공하여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중남미 신시장에서 우리기업이 후속사업에 진출하는데 있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사업총괄관리, 발주처를 대신하여 건설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관리, 사업의 공정 및 품질 관리 등 사업전반을 총괄 관리

* (페루 친체로 신공항 PMO, 3천만 불) 한국공항공사, 도화, 건원, 한미글로벌 참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진우 사무관(☎ 044-201-3517), 이주원 주무관(☎ 044-201-3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9년 해외건설 수주통계

【 2019 지역별 수주현황 】

구 분	2019		2018		전년대비 증감률 (%)	누계(~2019)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중 동	4,757	21.3	9,204	28.7	-48.3	437,405	52.5
아시아	12,539	56.2	16,207	50.5	-22.6	272,858	32.7
북미·태평양	566	2.5	1,041	3.2	-45.6	32,026	3.8
유 럽	2,469	11.1	3,708	11.5	-33.4	25,600	3.1
아프리카	1,713	7.7	1,222	3.8	40.3	26,234	3.1
중남미	280	1.2	733	2.3	-61.7	39,754	4.8
합 계	22,327	100.0	32,115	100.0	-30.5	833,880	100.0

【 2019 공종별 수주현황 】

구 분	2019		2018		전년대비 증감률 (%)	누계(~2019)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토목	4,538	20.3	7,162	22.3	-36.6	154,531	18.5
건축	4,912	22.0	5,379	16.7	-8.7	160,429	19.2
산업설비	10,869	48.7	18,376	57.2	-40.9	480,100	57.6
전기	655	2.9	358	1.1	83.0	17,669	2.1
통신	77	0.4	20	0.1	280.3	3,384	0.4
용역	1,272	5.7	819	2.6	55.3	17,766	2.1
합 계	22,327	100.0	32,115	100.0	-30.5	833,880	100.0

【 2019 수주 상위 10대 국가 】

순위	국가	2019		2018		전년대비 증감률 (%)	누계(~2019)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1	인니	3,744	16.8	877	2.7	326.9	21,211	2.5
2	사우디	3,019	13.5	2,405	7.5	25.5	144,577	17.3
3	중국	2,364	10.6	1,312	4.1	80.1	20,858	2.5
4	베트남	1,649	7.4	4,403	13.7	-62.5	40,689	4.9
5	폴란드	1,535	6.9	195	0.6	687.1	3,623	0.4
6	나이지리아	1,319	5.9	818	2.5	61.2	14,550	1.7
7	싱가포르	1,287	5.8	2,583	8.0	-50.1	43,073	5.2
8	방글라데시	886	4.0	171	0.5	418.1	5,996	0.7
9	UAE	709	3.2	5,336	16.6	-86.7	78,111	9.4
10	이라크	581	2.6	445	1.4	30.5	36,537	4.4
-		5,234	23.4	13,570	42.3	-61.4	424,655	50.9
	합 계	22,327	100.0	32,115	100.0	-30.5	833,880	100.0

◆ KIND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력하며 우리기업의 현지사업
수익계약 수주(現 3건)를 지원하는 협업체계 현황을 설명 드림

* PPPA(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 방글라데시 총리실 산하 PPP 총괄기관
(방글라데시는 '11년 이후 6% 이상 지속 경제 성장 중, 우리나라 ODA의 2대 수혜국)

I. 주요 내용

□ (협력 내용) KIND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인프라 개발을 위한 Joint Platform을 구성하여 우선 사업들을 선정하고,

- 우리기업들이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측과 수익계약(direct selection without any tendering process)으로 사업자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19.4월 방글라데시에서 KIND와 PPPA의 기관장 참석 하 MOU 서명

□ (추진 상황) 현재 약 3건의 우선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Joint Platform 회의 개최('20.1월) 계기에 이를 공식화 함

<<우선 사업 개요>>

- ① ((방측 제안) 다카~마이멘싱 도로개선 사업(5억불 규모) : KIND F/S 지원 중
- ② (방측 제안) 다카 순환철도 사업(85억불 규모) : 방측 F/S 진행 중
- ③ 양측 공동제안) 400kV 송전선로 사업(2억불 규모) : KIND F/S 지원 중

- KIND는 그간 우리기업을 상대로 설명회 개최('19.5월) 및 지원 희망사업 수요(약 10건) 파악·검토, 방글라 측과 사전 협의(7월, 서울)

□ (지원 의의) KIND가 프로젝트 단건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전략 국가 내 효과적인 수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단위 수주 지원 추진

II. 향후 계획

○ 제3차 Joint Platform 회의 개최*(서울) : '20년 하반기

* 우리기업의 추가 “사업우선권” 확보 추진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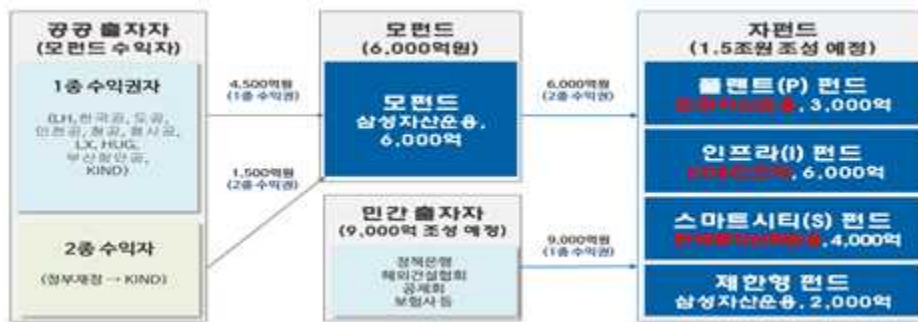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 (추진배경) 해외건설 수주 부진 및 단순도급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 필요

○ '19년 경제정책방향 반영, 해외수주활력제고방안 및 수출활력제고방안 내 펀드 조성 추진 등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

*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 1단계로 1.5조원 조성 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

□ (펀드 개요)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19.10), 민간투자를 유치(9천억원)하여 총 1.5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 (모(母) 펀드) 자 펀드 조성 및 관리, 자 펀드 자산의 유동화 및 Exit 지원, 다양한 자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로 투자위험 분산

* 총 6,000억원 : 정부재정 1,500억원 + 공공기관 4,500억원

○ (자(子) 펀드) 플랜트(P), 인프라(I), 스마트시티(S)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재간접구조의 4개 자펀드 조성('20.5) 추진 중

* 모펀드(6천억)+민간투자(9천억 유치중) = 4개 자펀드(P펀드(3천억), I펀드(6천억), S펀드(4천억), 제안형펀드(2천억))

○ (성격) Capital Call 방식의 Blind fund*

*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대상 프로젝트 선정 후 약정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집행(Capital call)하는 펀드

○ (투자대상) 프로젝트 SPC 지분 및 채권 등에 투자